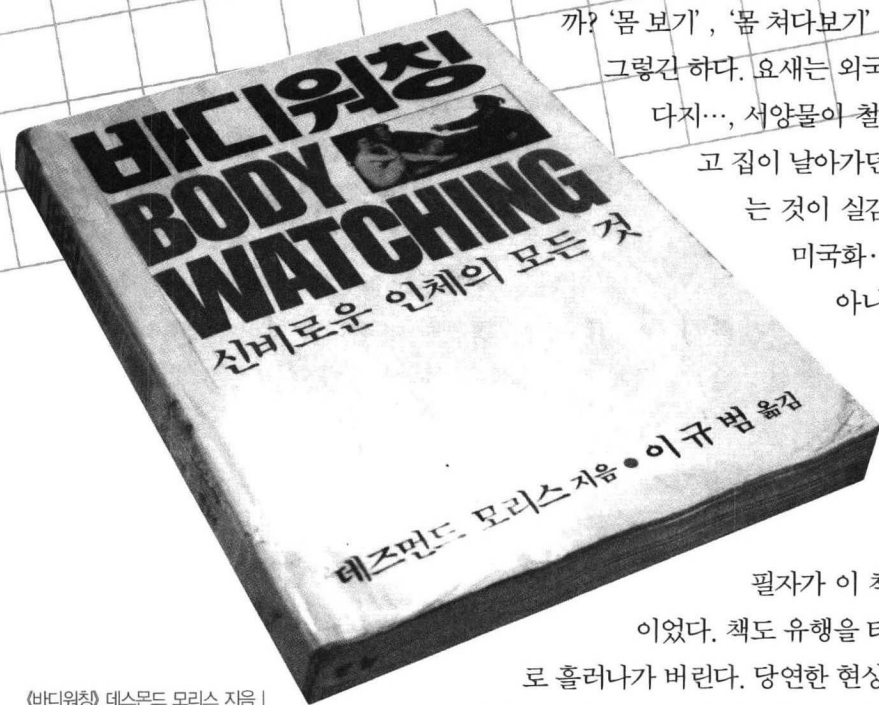


데스몬드 모리스 《바디워칭》

인간 행동학자의 색다른 안목과 분석

글_ 권오길

그야말로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다! 그리고 글 쓰는데 많이 인용하기도 했다. 《바디워칭》(Body watching)이라? 이거 우리말로 더 멋있게 바꿀 수 없었을까? ‘몸 보기’, ‘몸 쳐다보기’, ‘몸놀림’, ‘사람의 행동’ ... 아무래도 좀 그렇긴 하다. 요새는 외국영화도 거의 다 원제목을 그대로 따서 쓴다지..., 서양물이 철철 넘친다. 홍수가 범람하면 사람이 다치고 집이 날아가던데... 역지로 번역하는 것보다 그대로 쓰는 것이 실감(이해)이 간다는 뜻일 것이다. 참 많이도 미국화·서양화 했다. 그게 세계화가 아니겠는가. 아니면, 일본을 닮아간다고 해도 될 듯. 일본 사람들은 외국 것을 그대로 받아드린다면, 우리는 살짝 바꾸어 놓거나 우리 것을 덧붙여 놓고, 중국은 완전히 자기 것으로 확 녹여버리지 않는가.



《바디워칭》 데스몬드 모리스 지음 | 이규범 옮김 | 범양사

《바디워칭》은 좀 오래된 책이라 하겠다. 필자가 이 책을 손에 넣었을 때(1996년) 물경 13쇄 판이었다. 책도 유행을 타는지라, 한번 밀물이 되었다가 싸악 썰물로 흘러나가 버린다. 당연한 현상이다. 혹시나 이 책이 아직도 책방 구석에 먼지를 둘러쓰고 꽃혀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먼지를 후후! 털고 책장을 넘겨보기 바란다. 야! 하는 탄성이 절로 날 것이다.

여기에 세 번째 사람 몸에 관한 책을 다루는데, 셋 다 아주 성질이 다르다. 사진, 영상으로 신체의 구석구석을 들여다 본 책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디자인 인체》(김영사)와 상세하게 글로 쓴 《아름다운 우리 몸 사전》(지성사)을 이미 소개했다. 그런데 세 번째인 이 《바디워칭》은 세포의 물질대사, 조직의 역할, 기관의 기능, 몸의 구조의 설명과는 아주 동떨어진 내용이다. 한마디로 ‘몸의 속’을 보지 않고 ‘신체의 겉’을 관찰한 책이라서 특징이 있다. 얼마나 흥미로운 책인지 모른다. 재미없는 책은 책이 아니다.

차례를 훑어보면 이 책의 성질을 곧바로 짐작할 수 있다. 머리털, 이마, 눈, 코, 귀, 뺨, 입, 수염, 목, 어깨, 팔, 손, 가슴, 등, 배, 엉덩이, 궁둥이, 성기, 다리, 발들이다. 어디 근육, 신경, 위, 간, 대장 이야기 있는가. 내 나름대로 이 책 제목을 ‘겉으로 본 우리 몸’ 정도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저자 데스몬드 모리스(Desmond Morris)는 1928년생. 모리스는 영국 버밍엄 대학 동물학과를 졸업하고 옥스퍼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동물학자다. 런

● 이 글을 쓴 권오길은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도여중·고, 서울사대부고 교사를 거쳐 현재 강원대학교 생물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제42회 강원도 문화상 학술상(2000), 제13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저작상(2002), 제4회 대한민국과학문화상(2003) 등을 수상했고 ‘달팽이 박사’로 불리며 일반인들을 위한 대중과학의 친절한 전파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꿈꾸는 달팽이》《바다는 건너는 달팽이》《인체기행》《달팽이》《생물의 애육살이》《열목어 눈에는 열이 없다》《바람에 실려 온 페니실린》《어린 과학자를 위한 몸 이야기》 등 다수가 있다.

던동물원에서 포유류(哺乳類)관장을 하면서, 방송을 통해 (무려 600회) 동물의 여러 행동, 습성들을 알린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논문에다 명저(名著)를 여러 권 남겼다. 알아줘야 한다. 우리나라서도 이미 많이 읽힌 《인간의 친밀한 행동》(Intimate behaviour), 《털 없는 원숭이》(The naked monkey), 《인간 동물원》(The human zoo), 《바디워칭》(Body watching), 《인간 행동학》(Man watching) 등이 있다. 예를 든 책 중에서 《털 없는 원숭이》는 뭘 말하는 것일까? 우리들은 예부터 사람을 ‘머리에 털 난 짐승’이라 말해왔으니, 몸에 털이 없는 원숭이는 다름 아닌 인간이다!

이 책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는 옮긴이 이규범 씨의 ‘옮기고 나서’를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 “저자는 머리털에서 발끝까지 인체를 20부분으로 나누어 각각의 구조와 기능, 거기에 남아있는 진화의 흔적, 성장과 운동, 자세, 표정, 몸짓 등을 생물학, 의학, 심리학, 박물학 등 최근의 과학지식을 총동원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각 부분에 관한 문화적 고찰, 이에 얽힌 세계 각 민족의 미신과 신화 등을 빼놓지 않았으며 관찰(觀相)법까지 곁들인다.” 이규범 씨는 우연찮게도 데스몬드 모리스와 동갑(1928년생)이고,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병원에서 해부병리학, 임상병리학, 혈액학을 전공하였다. 번역전공이 아니고 의학을 전공한 터라, 번역에 작은 오류도 없어 보여 마음이 놓인다.

다음 물음들에 이 책의 즐거리가 들어있다. 대머리는 흔하지만 그 반대의 현상은? 흑인들이 고수머리를 하게 된 까닭은? 사람이 몸 다듬기를 할 때 가장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곳은?(머리치장) 눈썹의 솟은 남자와 여자 어느 쪽이 더 많은가? 동물 중에서 눈의 흰자위가 가장 흰 동물은? 여자들이 눈가에 색칠을 하는 이유는? 동양인들이 눈 꼬리가 올라가는 뜻은? 중동지방, 추운 지방 사람들의 코(코트)는 왜 그렇게 클까? 피그미족은 코가 작고 납작한데(코는 냄새 맡기, 발음에 관여하는 것 말고도 생리적으로 기온과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음) 근래 와서는 귀뿐만 아니라 코, 입술, 배꼽에까지 구멍을 뚫고 고리를 채우는데? 혀는 몇 가지의 말을 하는가? 입맞춤의 의미를 다 분석하면? 남성과 여성은 어느 쪽이 목이 길까? 어깨가 주는 의미는? 늑은이의 손에는 그 사람의 역사가 쓰여 있고, 지문에는 고유한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여성의 유방과 엉덩이가 왜 그리도 유사할까(앞 뒤 어느 곳에서나 성적 매력을 뽐낼 수 있게 되었다고? 사실 복숭아 열매도 무척 닮았다!). 등 짝은 문신을 하는 칠판이다! 여성 배꼽은 점점 수직(세로)

형으로 바뀌고 있다는데, 그것은 성기의 구멍 모양을 강력하게 암시한다고?(왜 젊은 여자들이 배꼽을 내 놓나 했더니만!) 여자의 몸은 어느 하나도 성적매력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없다지만 생식기능을 알리는 엉덩이와 궁둥이는 어디가 어떻게 다른가?(궁둥이(hip)는 사방 어느 곳에서 봐도 보이는 자리지만 엉덩이(buttock)는 반드시 뒤에서 봤을 때, 두 개의 부풀어 오른 부위를 말한다.)사람과 침팬지는 어느 쪽이 더 궁둥이가 발달 했을까? 작고 여윈 남성들이 당당한 체구의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큰 성기를 갖는 경향이 있다는데? 기다란 여성의 다리가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더 길어 보이려고 하이힐을 신는다고? 손바닥과 마찬가지로 발바닥도 절대로 햇볕에 그을리지 않는다? 그냥 몇 가지만 써본 것이다. 어쨌거나 내 몸에 이렇게 무궁무진한 그 무엇이 들어있다니!

데스몬드 모리스는 색다른 안목과 분석력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을 따라가기는 힘들다. 족달불급(足腕不及), 신발 벗고 뛰어도 미치지 못하겠다. ‘인간 행동학자’라 불려도 조금도 부족(不足)하지 않다. 사람이 걸어가는 형태를 무려 36가지로 나눠놓고 있지 않는가! 일상적인 거닐기(stroll)에서 시작하여 느린 거닐기(amble), 주춤 거닐기(dawdle), 어기적 걸음(hobble), 아장 걸음(mince), 출렁 걸음(roll) 등등 36가지를! 그것보다 옮긴이는 어떻게 저 어려운 영어를 우리말로 바꿔놨을까?

참, 하나 더 있다. 흑백이지만 기막힌 사진들이 많이 들어있어 이해를 돕는다. 어디서 저런 괴이하고(?) 기발한 사진을 다 구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다. 사진첩이라 불려도 좋을 것이다. 거기다가 해부학적 그림도 중간 중간 섞어서 이해를 돕고 있는데, 그것도 흔하게 보지 못하는 신기하고 다양한 것들이라 더욱 흥미를 끈다. 한국인 이야기가 빠지긴 했지만, 동서고금을 다 섭렵(涉歷)하고 있으니 더욱 책이 돋보인다. 눈 코 귀 입 목 팔다리 가슴 등 엉덩이 손 발 다리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표정이며 울동, 동작을 만들어 내는 것일까! 사람이란 동물이 괴이하고 특이한 것만은 부인키 어렵다. 그러나 그냥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들이지만 의미를 붙여보니 이렇게 멋있는 책 한 권이 되기도 남는다! 왜 우리는 그냥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지나치고 마는가? 나를, 나의 행동을 되씹어 볼 수 있어 좋았다. 아마도 저 다양한 사람의 모양과 형태, 행태, 행동방식, 기관의 여러 기능도 먼 훗날 지금과 다른 꼴로 바뀌어(진화)갈 것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것이니까. ㉔